

구두발표논문 초록

■ Session : 특별세션 IYA (AY)
4월 28일(화) 16:00 - 17:15 제1발표장

[AY-01] IYA2009 : 지구촌 시민을 위한 축제, 국민 모두의 축제

문홍규¹, 이경숙B¹, 김지혜B¹, 현성경¹, 채종철², 이희원³, 이명현⁴, 이경숙A¹, 이서구¹, 양홍진¹, 이동주¹, 홍대길⁵, 이강환⁶, 김천취⁷, 민영철¹, 강영운³, 양종만⁸, 박석재¹, 문종기¹, 김지혜A¹, 이용정¹, 안해도¹, 신정선¹
¹한국천문연구원, ²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³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⁴연세대학교 천문대, ⁵사이유, ⁶국립과천과학관, ⁷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⁸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지난 2008년 7월, 2009 세계 천문의 해(IYA2009, 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한국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공식출범했으며, 9월 사무국 설치 이후, 한 달 뒤인 10월 초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국내 캠페인은 교육, 문화, 행사, 미디어, 학술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분과는 '꿈과 우주', 문화분과는 '우주의 신비', 행사분과는 '우주와 나', 미디어 분과는 '미디어와 우주', 학술분과는 '배일을 벗는 우주'를 주제로, 일반시민들이 우주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조직위는 1월 1일, 부산 해운대에서 일반시민 4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해오름 행사와 국제태양관측 캠페인을 벌였으며, 1월 15일,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2009 세계 천문의 해 공식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날,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가 발행되었고, 같은 시간, 인술 교수 1명과 남녀 학생대표 2명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국제 개막식에 파견했다. 이와 함께 조직위 공식 웹 진인 '이야진'(www.astronomy2009.kr)을 공개했다. 조직위에서는 1월 초부터 '지구의 밤'(The World at Night) 천체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소외지역 방문 프로그램, 중소도시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 병원 방문 프로그램들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이 발표를 통해서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한다.

[AY-02] IYA2009: 교육/학술 분과 현황과 계획

채종철¹, 이희원², 김천취³, 민영철⁴, 문홍규^{4,5}, 이경숙B⁵, 김지혜B⁵, 현성경⁵, 강영운², 양종만⁶, 박석재⁴
¹서울대학교, ²세종대학교, ³충북대학교, ⁴한국천문연구원, ⁵세계천문의해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 ⁶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분과는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에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주로 대중적인 글쓰기, 강연, 인터넷,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행사에는 1월 1일에 부산 해운대에서 이루어진 <새해 해오름 행사>, 7월 22일에 있을 <일식 관측 행사>, 어린이가 참여하는 <스케치북에 담은 우주>가 있다. 공식 웹사이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외계 행성 사냥꾼>와 같은 내용물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하는 <천문학 지식 사전>을 준비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는 강연이 수십 회 있으며, 여성 천문학자들이 강연하는 프로그램인 <그녀는 천문학자>가 있다. 이 외에도 행사 분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대개 강연이 따라 붙게 된다. 천문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일간지 또는 과학 동아 등의 매거진에 글을 신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십 명의 천문학자가 제공하는 글로 이루어지는 <소년한국일보 천문 기사>연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학술 분과는 세계 천문의 해를 빛내기 위한 <한국천문학회와 한국우주과학회의 공동 봄 학술발표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망원경을 통하여 밤하늘을 관찰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한국과학사학회와 공동 기획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유엔 기초 우주 과학 워크샵>을 지원하고 있다.

[AY-03] IYA2009 : 행사분과 현황 및 계획

이서구¹, 문홍규¹, 양홍진¹, 이동주¹, 이경숙B¹, 김지혜B¹, 현성경¹, 강영운², 양종만³, 박석재¹, 문종기¹, 김지혜A¹, 이용정¹, 안해도¹, 신정선¹
¹한국천문연구원, ²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³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2009 세계천문의 해'는 '천체관측 체험을 통해서 기초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한다.'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행사분과에서는 별을 본 경험이 없는 일반시민들에게 관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기획을 마련했다. 국내 이벤트 가운데 '해오름 행사', '2009 세계 천문의 해 공식 선포식', '우주로 공을 차다'는 물론, '100시간 천문학(100HA, 100 Hours of Astronomy)' 기간 동안 일반시민들의 참여 속에 '캠퍼스 별 축제', '시민천문대의 밤', '과학관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병실에서 마음의 별을 찾다' 행사를 매일 한 번 시행하고 있다. 국제 이벤트로는 '100시간 천문학' 기간 동안 '24시간 대형 천문대 웹 캐스팅', '거리의 별 축제'를 진행하는 한편, '별밤보존(Dark Sky Awareness)',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Earth Hours)과 같은 국제공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스타 카"를 이용해서 소외지역 어린이 프로그램인 '우주 바로알기'(Universe Awareness)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6개 시민천문대와 각급 과학관은 물론, 기차역,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구에서 보는 우주'(FETTU, From Earth to the Universe), '지구의 밤'(TWAN, The World at Night) 순회전시회를 열게 된다.

[AY-04]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문화/미디어분과 사업 현황

이명현¹, 문홍규^{2,5}, 이강환³, 이경숙A², 홍대길⁴, 최철성^{2,5}, 김지혜B^{2,5}, 이경숙B^{2,5}, 최성환^{2,5}, 현성경^{2,5}, 강영운⁶, 양종만⁷, 박석재²
¹연세대학교 천문대, ²한국천문연구원, ³국립과천과학관, ⁴사이유, ⁵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편집국, ⁶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⁷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